

정보화예산 삭감 충격...SW기업, 공공사업 줄여

발행일 : 2024-04-18 14:51 | 지면 : 2024-04-19 | 1면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사업 일관성·예측성 저하
관련조직 축소·납품 포기
지자체 등 대안찾기 골몰

공공 연구개발(R&D)과 정보화 예산 삭감이 국내 소프트웨어(SW) 및 클라우드 업계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관련 기업들이 공공 사업 비중을 줄이거나 상대적으로 예산 운용이 자유로운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사업 비중을 높이는 등 '비상 경영'에 돌입했다.

민간에 비해 안정적이던 공공사업마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SW 및 클라우드 기업들의 우려가 크다.

18일 SW 업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인 SW 기업 크라우드웍스는 최근 공공 사업본부를 폐지했다. 지난 2022년 본부를 설립한 지 불과 2년여 만이다.

크라우드웍스가 공공 사업본부를 없앤 것은 공공 사업 예산 축소로 조직 운용 필요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회사 관계자는 “공공 사업 수익성이 적어진 것이 공공 사업본부를 폐지한 한 이유”라면서 “다만 엔터프라이즈 본부 내에 퍼블릭팀을 신설해 공공 사업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클라우드 업계도 상황은 비슷하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CSP)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시장 성장에 맞춰 클라우드 관리서비스 제공(MSP) 사업에 진출한 중견·중소 IT서비스 기업도 정부 예산 축소에 타격을 받았다.

관련 사업에서 두각을 드러내 온 중견 IT서비스 A사와 B사가 공공 사업 조직을 축소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A사와 B사가 줄어든 공공 사업 때문에 기존 조직을 줄이고 있다”면서 “특히 지난해 수백억원 적자를 낸 C사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욱 좋지 않다는 얘기가 들린다”고 귀띔했다.

자발적으로 공공 시장을 포기하는 움직임도 나온다. 공공 부문에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납품하기 위한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현황을 보면, 2016년 제도 시행 이후 누적 인증 113건 가운데 17건이 지난해 취소됐다.

공공 R&D 예산 축소 영향도 발생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공 SW와 관련해 R&D 과제를 수주했는데, 예산이 50%나 삭감됐다”면서 “필요 인력 등을 확보해서 과제를 수행해왔는데, 일방적인 예산 삭감 통보로 정상적인 과업 수행이 어렵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대안 사업 찾기에 한창이다. 민간 수요를 찾거나 중앙정부 대신 지자체 사업 비중을 확대하는 식이다. 대표적으로 네이버는 기존 공공 사업 담당자를 계열사인 네이버클라우드로 전보 조치하고, 지자체 사업을 담당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자체 사업으로 실적을 만회하려는 접근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장기적이고 안정된 공공사업을 펼치고, 이에 맞는 예산 배정으로 관련 기업들에게 사업 예측성을 높여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토종 비문인식, '반려동물 천국' 라틴아메리카 진출한다

[\[유니온커뮤니티\] 뉴스를 바로가기>](#)

한 SW 기업 대표는 “우리나라 SW 기업이 저평가받는 이유는 경영 불확실성 때문”이라면서 “갑작스런 정책 변화로 공공 사업이 부침을 겪지 않도록 정부가 일관된 사업 정책과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Copyright © Electronic Times Internet. All Rights Reserved

NAVER 전자신문 주요뉴스 바로보기

Edm 전자신문 뉴스채널 구독하기